

202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3. 3. 9. (목), 14:00~16:3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8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제척사유 고지 및 의결방식 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 목 차

## 【심의사항】

1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 유적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	3
---	--	---

## 【검토사항】

2	공주 신관동 주변 주상복합 건설 관련 세계유산 영향분석 검토	13
---	-----------------------------------	----

## 【보고사항】

3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 보고	19
---	---	----

4	조선왕릉 관련 보고	21
---	------------	----

5	「한양의 수도방어성곽」(신청명: 한양의 수도방어성곽,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조정 등록 보고	22
---	---	----

6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보고	24
---	-------------------	----



# 심 의 사 항



## 1.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 유적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

### 가. 제안사항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 유적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오산시)에서 신청한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 유적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신규신청

※ 참고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6조

- ① 문화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잠정목록 대상 유산으로 선정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의 등재기준을 충족하고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유산을 직권으로 잠정목록 대상 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잠정목록 대상 유산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 그 유산의 잠정목록 등재여부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다. 선정 절차 및 방식

- 제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토대로 잠정목록 등재신청 대상 선정 여부 결정
  -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 신청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신청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라. 잠정목록 등재신청서(안) 주요 내용(경기도 작성, 세부내용은 요약자료 참조)

- 제시한 유산명칭 :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 유적군

○ 신청유산(10개소)

연번	구성요소 명칭	지역	지리적 위치	문화재지정	사상적 속성	기능적 속성
1	화성 용릉과 건릉 (세계유산, 2009등재)	화성시	37°12'42"N 126°59'27"E	사적 제206호 (1970)	효(孝)의 상징	능침
2	수원 화성행궁	수원시	37°17'00"N 127°00'45"E	사적 제478호 (2007) 봉수당진찬도 (보물 제1430-2호)	효(孝)의 실천	통치
3	수원 화령전	수원시	37°16'57"N 127°00'41"E	사적 제115호 (1963)	효(孝)의 연속성	통치
4	지지대비	수원시	37°19'41"N 126°59'04"E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7호 (1972)	효(孝)의 연속성	통치
5	수원 화성 (세계유산, 1997 등재)	수원시	37°09'38"N 127°03'44"E	사적 제3호 (1963) 팔달문(보물 제402호), 화서문(보물 제 403호), 장안문, 서북공심돈(보물 제1710호), 방화수류정(보물 제1709호)	효(孝)의 실천과 통치	관방
6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오산시	37°10'59"N 127°01'07"E	사적 제140호 (1964)	효(孝)의 실천과 통치	관방
7	만석거	수원시	37°17'59"N 127°00'01"E	수원시 향토유적 제14호 (2006)	애민(愛民)	관개
8	수원 축만제	수원시	37°16'40"N 126°59'17"E	경기도기념물 제200호 (2005)	애민(愛民)	관개
9	수원향교	수원시	37°16'26"N 127°00'43"E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호 (1983) 수원향교 대성전 (보물 제 2090호)	교화(教化)	통치
10	오산 켈리사	오산시	37°09'37"N 127°03'43"E	경기도기념물 제147호 (1994) 켈리사성적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2호)	교화(教化)	통치

○ 등재기준

- (ii)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반영

신청유산은 정조라는 군주가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의 보편적 가치인 효, 애민, 교화의 유교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한 신도시 유적이다.

-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신청유산은 동아시아의 전통적 도시계획 규범인 유교적 질서와 풍수지리와 18세기 상공업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가치관이 결합된 국왕 주도의 계획도시 건설과정의 증거이다.

○ 등재기준 상세내용

- 신청유산은 화성 율릉과 건릉, 수원 화성행궁, 수원 화령전, 지지대비, 수원화성,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만석거, 수원 축만제, 수원향교, 오산 궐리사 등 10개의 건축물, 기념물 등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 신청유산은 동아시아의 유교문화권 내에서 효, 애민, 교화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가 18세기 조선 22대 임금 정조(1776~1800)를 통해 당시 상공업 발달과 실학사상이 융합되어 단기간에 강한 목적성을 가지고 구현된 계획도시의 유형적 증거물이다. 이에 신청 신청유산은 동일 유교문화권 내 다른 도시의 건설배경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차별성을 갖는다.
-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의 오랜 전통은 『주례』 고공기의 개념에 입각하여 설계하는 것이며 도시의 입지 선정 및 공간 구성에 있어 중국의 영향을 받은 풍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정조의 신도시 건설에는 기존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가치였던 유교적 질서와 18세기 근대이행기 조선사회의 사회적 변화와 기술발달이 반영되어 상공업의 발달과 실학사상이 기존 유교질서와 융합되어 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수원 화성은 18세기 조선사회의 사회적 변화와 기술 발달을 보여주는 새로운 양식의 성곽이며, 관개시설인 만석거와 수원 축만제에서는 제언 내 수위의 안정적 유지 및 관개수량의 적절한 조절이 가능한 수갑이 설치되어 18세기 당시의 선진적 수리기술을 확인 할 수 있다.
- 신도시를 구성하는 10개 구성요서는 능침, 관방, 관개, 통치의 기능적 속성을 갖는다. 능침유적에는 화성 율릉과 건릉이 포함되며, 관방유적으로는 수원 화성,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가, 관개유적으로는 만석거, 수원 축만제가 있으며, 통치 유적으로는 수원향교, 오산 궐리사, 수원 화령전, 지지대비, 수원 화성행궁이 해당 된다. 그리고 각 구성요소들은 현릉원 천장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인과성을 가지며 강한 연계성을 지닌다.

마. 잠정목록 등재추진 경과

- 신규신청

사.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의견

- 조사일 : 2023. ○. ○.(월) ~ ○. ○.(화) / 경기도 수원, 화성, 오산 10개소
- 조사자 : ○○○,○○○,○○○
- 조사의견(요약)

##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의 충족 및 등재범위(지역적 범위)

### 1) 등재신청기준 충족여부

- 정조시대의 유교적 가치를 도시건설과 연계하여 일부 구성요소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자하는 시도는 긍정적이나, 신청유산 모두 '정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제시된 보편적 가치는 유산의 고유 가치가 아닌 설정된 가치를 설명하고 있음
- 등재기준 (ii)는 인간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반영하는 유산 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청유산이 제시한 유교적 가치 실천을 목적으로 건설한 신도시 유적군은 "교류"와는 거리가 있으며, 정조의 효, 애민, 교화가 세계인류의 문명사에서 어떤 시대적, 지역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음. 정조의 신도시 건설은 왕권강화를 위한 방안이며, 효, 애민 등은 국왕의 기본적 소양의 하나로 신청유산을 효, 애민, 교화 사상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한 특별한 사례로 설명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임
- 등재기준 (iii)은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청유산은 유교질서, 풍수지리와 18세기 상공업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가치관이 결합된 국왕 주도의 계획도시 건설과정의 증거임을 내세웠지만 신청유산은 계획도시 건설 측면에서 '도시'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함. 수원화성이 18세기 동아시아의 도시사 속에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기술은 긍정적이나 유교적 질서, 풍수지리에 대한 기술은 타 유산과 차별성이 드러내지 않으며 이미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곽 이외의 다른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2) 완전성 충족여부

- 시가지 구역을 제외하고는 신도시 건설의 가치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완전성 충족을 위한 유산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범위가 확보되지 않음. 만석거, 축만제 등은 조사연구나 원형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으며 구성요소에 포함된 다수의 유산들은 그 특성을 명확히 설명하기에는 다소 미흡함. 또한 성곽의 내외는 현대도시화의 과정에서 경관적 훼손이 적지 않아 완충구역 밖의 광역권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 전략이 필요해 보임
- 정조의 '효' 실천에 중요한 용주사와 용릉 능행에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만년제, 능행길 등 핵심유산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수원 향교, 오산 쉼터사는 정조와 인연은 있지만 신도시의 기능과 관련성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미 세계유산에 등재된 수원화성, 용릉과 건릉은 이번 잠정목록 신청에서 보편적 가치와 연계된 완전성을 새롭게 드러내지 못함

### 3) 진정성 충족여부

- 이미 세계유산에 등재된 수원화성, 용릉과 건릉은 진정성을 인정받았고, 화령전, 독산성, 수원향교는 비교적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만석거는 저수지 유역 면적이 상당부분이 매립되는 등 변형을 거쳐 공원화 되었으며 저수시설의 핵심이 되는 제방과 수문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변형됨. 복원된 수원행궁은 원형과 주변 여건 부분에서 진정성의 한계가 있으며, 지지대비는 간선도로의 레벨이 크게 바뀌었고, 켈리사와 세미대지 등 최근 변형·신축된 요소들의 진정성은 검토가 필요함

### 4) 등재 범위의 타당성(유산의 구성, 유산구역의 설정 등)

- 구성요소별 공간적 범위의 편차가 크고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유산의 경우 조사연구 성과가 부족하여 유산구역의 설정기준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신도시 건설을 표방했기 때문에, 수원화성 내의 시가지, 도로망 등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유산구역의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구성요소 중 수원화성만이 신청유산의 가치를 핵심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만석거, 축만제의 수공간 면적을 제외하고 수원화성과 용건릉이 유산구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타 요소와 불균형 있으며 새로운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하기 어려움
- 만석거는 유산 형성 당시의 범위를 확인하는 등 원형고증을 통해 등재 범위를 재설정해야 하며, 축만제 저수지 유역은 남쪽으로 인접한 농경지(둔전 추정지역)를 유산구역에 포함시키려면 일제강점기 지적도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지지대비는 지지대고개에 있으나 현재 지지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없으며 비각내 기념비는 동산적 성격의 유산이고 지지대 고개를 유산구역으로 설명한다면 유산의 구성요소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5) 비교연구의 적절성

- 신청유산의 분포범위나 제시된 보편적 가치를 고려해 볼 때 제시된 비교연구 대상과는 상당한 괴리현상을 보이고 있음
- 비교연구는 신청유산과 시대적, 기능적으로 연관성을 갖는 유산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유사유산과의 공통성, 차별성을 드러내야 함. 국외사례로 수도지역 이외의 신도시 건설사례, 근대도시건설 유적 등을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그 예로 프랑스 베르사유궁전, 이탈리아 18세기 카세르타 왕궁, 브라질 브라질리아 신도시 건설구역 등이 있음. 국내사례로는 수원화성 신도시의 기능과 관련성을 갖는 우수부 설치지역(개성, 강화 등), 보장처(남한산성 등)를 들 수 있음

- 기 등재된 유산에 대한 비교검토가 함께 진행되어 논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수원화성과의 비교가 핵심이 되어야 함. 수원화성의 등재기준 (ii)는 성곽의 기술적, 형태적인 문명 교류에 초점을 두고 있고 (iii)은 방어기능과 18세기 한국의 역사 속에서 행정, 상업의 기능을 포괄하는 새로운 도시적 프로젝트임을 강조했다. 특히 (iii)은 본 신청유산이 표방하는 가치와 상당부분 중복되기 때문에 본 신청유산은 새로운 등재신청 유산으로서의 독립적인 가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해당 유산의 보존·관리 현황

- 기 등재된 유산인 수원화성, 화성 율령과 건릉의 관리 상태는 양호하며,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수원 화성행궁, 수원 화령전,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및 지방문화재인 지지대비, 수원 축만제, 수원 향교, 오산 궐리사는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음. 만석거와 축만제 등 수리시설은 자연환경변화에 민감한 시설이며 유역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전문 모니터링이 필요함. 특히 만석거는 수원시 향토유적으로 공원화되어 관리상태가 나쁘지 않으나 법적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 지자체 및 주민의 의지 및 향후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 7개의 구성요소가 위치한 수원시, 2개의 구성요소가 위치한 오산시, 그리고 이들을 포괄하는 경기도의 행정적 의지는 뚜렷해 보이지만, 율령과 건릉이 위치한 화성시는 용주사, 만년제 등 추가적인 등재 노력이 확인되지 않아 연속유산으로서 협의체 구성에서 참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것으로 여겨짐
- 대상유산이 위치한 지역은 도시개발이 가속화되는 곳으로 유산보호를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며, 신청유산의 가치를 고려해볼 때 향후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상향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기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이미 등재되어 있는 수원화성 및 조선왕릉의 구성요소인 율령, 건릉의 가치 기여가 다른 구성요소들에 비해 월등하게 큰 상태이며, 수원화성 자체로서 '신도시 건설'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음. 본 신청서는 비교연구 및 가치발굴을 통해 차별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효, 애민, 교화의 가치는 18세기 문명사에 적절치 않고 타 유산과 중복점이 적지 않음

- 각 구성요소들은 '정조'라는 연결고리에 국한되어 신도시 건설의 가치에 기여점을 확인하기 어려움. 18세기 신도시는 '정조'를 중심으로 신지식인의 등장과 신학문을 배경으로 등장하므로 '수원화성'이 중심이 되므로 수원화성의 확장등재를 통해 일부 구성요소를 추가하거나, 타 유산과의 연속유산 구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탐색하는 전략을 시도하는 것이 나올 수 있음
- 선언적 가치에 기반한 연속유산보다는 유산의 가치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통하여 진정성과 완전성을 확보한 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함. 유산 자체의 가치를 통해 단독유산으로서의 등재가능성을 도출하거나 그 가치를 보완 상승시킬 수 있는 연계유산들을 통합한 연속유산으로서의 등재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 있음

#### 아. 소관부서 검토 의견

- 효, 애민, 교화라는 사상적 속성과 능침, 통치, 관방, 관개라는 기능적 속성을 토대로 구성된 유산의 10개의 구성요소가 각 연속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기여하는 편차가 크다고 보임. 따라서 속성과 구성요소의 재정립이 필요해 보임
- 현지조사 결과 일부 구성요소(특히 만석거)의 조사연구 실적이 미흡한 점과 화성시의 일부 유산 포함 필요성을 확인하여 신청서의 진정성, 완전성, 유산구역 설정의 보완과 검토가 필요해 보임
-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 유적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 대상 선정 여부에 '잠정목록' 단계에 신청유산이 적합한지의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자. 의결사항

- 부결
  - 연속유산으로서 구성요소가 OUV가치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며 일부 구성요소는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음
  - 정조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시간성, 도시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함
  - 출석 8명 / 부결 8명



# 검 토 사 항



## 2. 공주 신관동 주변 주상복합 건설 관련 세계유산 영향분석 검토

### 가. 제안사항

충남 공주시 소재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 공산성) 주변에 주상복합 건물사업에 대해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 공산성) 주변에 주상복합 건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청인은 '공주시'의 요청에 따라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118bis)'에 의거 세계유산영향평가(HIA\_Scoping Report 단계)를 실시하였고, 해당사항에 대한 문화재청의 검토의견을 요청('23.2.27.)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주)씨앤디

(2) 세계유산 개요

- 세계유산(구성요소)명 :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 공산성)
- 문화재명 : 공주 공산성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금성동 53-12

(3) 신청내용(사업개요)

- 사업명 : 신관동 608번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 대지위치 :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8번지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도시지역, 여객자동차터미널 저축, 중점경관관리구역
- 대지면적(연면적) : 17,000.20㎡(지상137,257.4261㎡(피난안전구역 포함)/지하70,471.5771㎡)[합계: 207,729.0032㎡]
- 건축면적 : 10,703.5214㎡
- 용적률/건폐율 : 793.44%(법정: 800%이하) / 62.96%(법정: 80%이하)
- 세대수(규모)/구조 : 938세대(지하5층, 지상45층) / 철근콘크리트조

(4) 그간의 추진경과

- ('21.1월) 608부지 내 주상복합건물 신축신청에 대한 의견요청
- ('21.2월) 「세계유산협약」 및 관련규정 종합검토 후 적의조치 할 것
- ('22.7.12) 문화재위원회(세계유산분과, 사적분과) 합동 현지조사
- 조사결과 : 주상복합 개발사업 관련 세계유산 영향평가 추진경과 확인필요

- 공주시 : 사업시행자 측에서 용역사를 통해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음을 회신('22.7.21)
- ('23.1.3) 사업자측의 충남건축위원회 심의(건축,교통)신청에 따라 관련자료 제출 및 의견요청
- ('23.1.19) 의견제출
- 주요내용 : '공주시'에서 제출한 자료는 불충분, 22년 유네스코 발간자료를 참고하여 영향평가 실시권장, 또한 유네스코와의 사전협의를 위한 Scoping Report를 '23.2.28까지 제출요청
- ('23.2.27) 추가 보완자료 제출

(5) 공주시 및 신청인 의견

<공주시>

- 공주시 신관동 608번지는 공주시 신관동 609번지로 시외버스터미널의 기능이 이전된 현재까지 이해관계자 간 재산권 분쟁 등 법적 다툼이 지속되고 있음. 옛 시외버스터미널 건축물은 버스터미널 및 상가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어 도심 환경문제 및 시민 안전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음
- 해당 번지는 사적 및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 공산성)」의 문화재 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하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및 세계유산 완충구역에서 벗어나 있으나, 공주 공산성에서 직접 조망되는 고층 건물의 신축 행위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됨. 이에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세계유산 영향평가(HIA)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신청인>

- 공주시 신관동 608번지는 과거 공주 버스터미널로 사용되다 터미널 이전 후 지난 20년간 방치되어, 주변 노후된 건물들과 함께 도시미관 저해 및 청소년 범죄 등 우범지역으로 전락하였음. 과거 몇 차례 재생사업이 시도되었으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현재 공주시의 대표적인 장기 미집행과제임
- 사업대상지는 금강 이북 신시가지 권역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500m(2구역) 및 세계유산 완충구역에서 벗어나 있음. 본 사업은 백제고도 및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 보존에 노력하는 동시에 인구감소, 성장동력 고갈 등 심각한 지역 문제 해결에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봄

- 본 사업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세계유산 완충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공주시’의 요청에 따라 공산성에 시각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음. 공주시 경관계획 중 「중점경관 관리구역지침」을 설계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초기 설계 계획을 변경하여 금강 쪽 공산성 방향으로 높이를 낮추어 시각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변화감 있는 스카이라인”(충청남도 경관심의 심의사항)을 형성하였음
- 현재 경관 사전심의 및 본심의(2021. 11)를 거쳐 충남 건축·교통 통합심의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이며, 공주 신관지구가 개발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공주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라. 검토의견[세계유산정책과]

- ‘23. 1. 19. 문화재청은 ‘공주시’에 위 사항 관련 자료 불충분으로 관련 자료 참고하여 보완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23. 2. 27. ‘공주시’는 내용 보완 후 다시 제출함
-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해당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세계유산 완충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이지만, 주상복합 완공 시 <공주 공산성>에서 건축물이 조망되는 상황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 참고사항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118bis)’ 등에서 유네스코 등재구역(유산구역, 완충구역) 외 더 넓은 환경(wider setting)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한 유산영향평가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적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법적근거(대상, 절차 등)는 없으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21.12.8.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세계유산영향평가 도입 등) 박정 의원 대표 발의, ’23.3월 현재 법사위 계류 중

## 마. 향후계획

- (‘23. 4월 ~) 문화재위원회 가결 시 ‘공주시’에서 제출한 Scoping Report를 토대로 유네스코 사전협의 추진

## 사. 의결사항

- 보류
  - 세계유산영향평가(Scoping Report) 자료의 내용과 요건이 불충분하므로 자료 보완 후 재검토 필요
  - 출석 8명 / 보류 8명



# 보 고 사 항



### 3.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 보고

#### 가. 보고사항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와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 나. 보고사유

- 부산광역시 신청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잠정목록 선정 심의 경과는 다음과 같음
  - 2017.6월 : 잠정목록 심의 결과 “보류”
  - 2017.12월 : 잠정목록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
  - 2018.1월 : 문화재청 현장점검
  - 2022.10월 : 조건 해소 후 잠정목록 등재 신청
  - 2022.12월 : 잠정목록 심의 결과 “가결”
  - \* “피란수도”의 구조와 현상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면 단위의 도시적 접근 필요
  - \* 행정구역 단위를 초월하여, 한국전쟁기 피란수도와 관련된 시설들이 구성요소에 적절히 포함되도록 지속적인 연구 권고
  - \* 관계전문가의 추가 자문을 거쳐 세계유산센터 등록을 위한 잠정목록 신청서를 작성(국문, 영문)하고, 이를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
- 이에 위원회 가결 이후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함

#### 다. 추진개요

- 원고 검토 및 보완
  - (국문) 전문가 검토(○○○, ○○○/’23.2월)
- 주요 검토 의견
  - 유산의 구성요소, 개별유산 설명 등에서 유산의 명칭, 나열 순서, 유산의 개요 및 개별유산이 OUV에 기여하는 가치의 핵심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하며, 항목마다 서술의 방식을 통일 시킬 필요 있음
  - 진정성 및 완전성 기술을 해당 항목에 맞춰 재정리할 필요 있으며, 진정성 기술에서 ‘본래 기능’의 의미 및 도심지 유산의 본질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서술하고, 완전성 기술에서 각 구성요소가 피란수도로서의 기능을 포괄하는 연속유산 구성으로서의 설명 필요

#### 라. 향후계획

- ('22.3월) 영문 번역 및 전문가 검토
- ('22.4월) 잠정목록 등록 (문화재청 → 세계유산센터) \* 제출 즉시 등록

#### 마. 의결사항

- 원안 접수함
  - 출석 8명/ 접수 7명, 제척 1명

<별첨>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 신청서(국문) 1부.

## 1. 조선왕릉 관련 보고

- 회의록 비공개(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 제2호)

## 5. 「한양의 수도방어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조정 등록 보고

### 가. 보고사항

「한양의 수도방어성곽: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조정 등록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 나. 보고사유

○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 신청 「한양의 수도방어성곽」 등재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음

#### <한양도성 등재 추진경과>

- 2012.11월 : 잠정목록 등재
- 2014.11월 : 2016년도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대상 선정
- 2016.1월 : 등재신청서 제출
- 2017.3월 : 이코모스 등재불가 권고→등재신청 철회 이후 “잠정목록” 지위 유지
- 2019.1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결과 “보류”
- 2020.2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결과 “보류”

#### <북한산성 등재 추진경과>

- 2018.4월 : 잠정목록 선정 심의 결과 “부결”

####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 등재 추진경과>

- 2022.7월 : 우선등재목록 선정 심의 결과 “보류”
- 2022.12월 : 우선등재목록 선정 심의 결과 “가결”

○ 「한양의 수도방어성곽」 세계유산 잠정목록 조정 등록 경과는 다음과 같음

- 2012.11월 : 한양도성 잠정목록 등재(단일 유산: 한양도성)
- 2022.12.8. : 우선등재목록 선정 심의 결과 “가결”(연속유산 :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 2023.1.12. : 잠정목록 조정 추진 보고
- 2023. 2월 : 잠정목록 조정 등록 추진(연속유산 :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 다. 추진 개요

### ○ 원고 검토 및 보완

- (국문) 전문가 검토(○○○, ○○○, ○○○)/ '23.1월중)
- (영문) 전문가 검토(○○○/ '23.1월중)

### ○ 주요 검토 의견

- (국문) 유산에 대한 선언적·단정적 표현 지양, 18세기 국내외 정세 및 유산 자체에 대한 설명 보강, 유산의 독보적 증거와 가치 제시, 수도방어성곽으로서 역사적 의미 및 축조 기술의 탁월성 부각, 국내 비교에서 화성·남한산성과의 구체적 비교 및 고구려·고려 사례 보강, 국외 비교에서 중국사례(요·금·청)는 신중한 비교방식으로 접근 및 독자성과 기술적 탁월성에 초점 두어 비교 서술 필요
- (영문) 국문신청서에 대한 명확한 이해 기반 번역,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매끄러운 표현 사용, 문법상 오류 등에 대한 최종 검토 필요

## 라.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23.1월중) 국문 원고 전문가 검토 및 보완
- ('23.1월중) 영문 원고 전문가 검토 및 보완
- ('23.1월말) 수정된 잠정목록 제출(문화재청→주유네스코 대한민국대표부→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 ('23.2.23.) 잠정목록 조정 등록 완료(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반영)

## 마. 의결사항

- 원안 접수함
  - 출석 8명 / 접수 8명

## 6.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보고

### 가. 보고사항

우선등재목록 유산을 대상으로 등재신청후보 신청서의 고도화 지원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간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 드립니다.

### 나. 보고사유

- 「대곡천 암각화군」은 2022년 제6차 회의(2022.12.8.)에서 등재신청후보 심의가 “보류”됨. 「한양의 수도방어성곽」은 2022년 제6차 회의에서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됨
- 우선등재목록 유산 2건을 대상으로 등재신청후보 신청서의 고도화 지원을 위한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서 작성을 위한 방향 및 자료에 대해 검토 받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추진기간 : 2023. 2. 16. ~ 4. 7. 소위원회 운영
- 추진대상: 「대곡천 암각화군」(울산광역시), 「한양의 수도방어성곽」(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
-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
  - 유산별 문화재위원 3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 「대곡천 암각화군」 : ○○○, ○○○, ○○○
  - \* 「한양의 수도방어성곽」 : ○○○, ○○○, ○○○
  - 유산별 소위원회 3~4회 운영(대면, 비대면 회의 병행)

### 라.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23.2.7.)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수립
- (23.2.20.) 제1차 소위원회 개최
- (23.3.9.) 제2차 소위원회 개최(「한양의 수도방어성곽」)
- (23.3.15.) 제2차 소위원회 개최(「대곡천 암각화군」)
- (23.3월말~4월초) 제3·4차 소위원회 개최 예정
- (23.4.13.) 등재신청후보 선정 심의(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제3차 회의)

### 마. 의결사항

- 원안 접수함
  - 출석 8명 / 접수 8명